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20. 7. 31)  
제2020-7월호(통권 55호)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 코로나19(COVID-19)를 통해서 본 미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타격과 대처 그리고 팬의 가치

김지호(Wingate University)

- I COVID-19로 인한 미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손실
- II COVID-19와 미국 프로스포츠산업의 대처
- III 무관중 경기로 본 스포츠판의 역할과 가치
- IV 참고문헌

## 요 약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COVID-19가 미국 스포츠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과 이에 대한 미국 프로리그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무관중 경기를 통해 스포츠경기에서 팬의 존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경기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팬데믹 이전부터 미국 프로스포츠 산업은 비용증가, 관중감소, 시청률 감소, 유소년 스포츠 참가 감소 등 미래 시장에 대해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미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지금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12.3 billion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NCAA 풋볼과 NFL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배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NFL과 MLB의 경우 관중 없이 시즌 전체가 진행된다면 작년대비 최소 구단 수익의 30% 이상의 손실과 이에 따른 선수들의 연봉 조정도 불가피하다. 경기장 수익 손실로 인해 메이저스포츠 중 상대적으로 MLB의 이익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는 미디어들의 광고수익 손실도 예상된다.

7월 23일 MLB를 시작으로 프로리그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9월에는 2차 감염확산이 우려 되는 가운데 NFL도 시즌 시작을 준비 중이다.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어느 리그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NBA와 NHL의 버블시스템은 앞으로 다시 찾아올 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에서 프로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홈과 원정을 오가며 시즌을 치르고 있는 MLB의 경우 시즌 개막 후 끊임없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NFL의 경우, 대략 \$7 billion을 들여 지은 Los Angeles Rams, Los Angeles Chargers와 Las Vegas Raiders의 피해와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 NFL이란 상품에 약 \$7 billion이 투입된 2020년 시즌이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허니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첫해의 기회는 상실 되었고, 새 구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 구단, 및 리그의 재무적 부담은 커졌다. MLB와 같은 형태로 운영될 NFL이 정상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월 경제봉쇄 이후 4개월 만에 스포츠가 미디어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스포츠 경기는 COVID-19 이전 스포츠팬을 설레게 만들던 경기장 분위기와는 모습이 달랐다. 무관중 경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팬들의 가치와 스포츠를 특별한 시간과 공간으로 만드는 조력자로서의 팬들의 역할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내년 시즌 팬들과 함께 만드는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경기를 고대한다.

<들어가는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4,339,997의 누적 확진자와 총 148,866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CDC는 8월 15일에는 미국 내 COVID-19에 의한 누적 사망자 수가 160,000명에서 175,000명에 이를 것으로 어두운 예상을 내어놓았다. 높은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 추이를 두고 혹자는 ‘미국이 제1.5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미국 사망자 수(116,516명)와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 사망자 수(405,399명)의 중간 정도의 사망자 수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월 팬데믹 확산 이후 7월 말 현재 확산 추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가을 환절기에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해 경고와 2차 경제봉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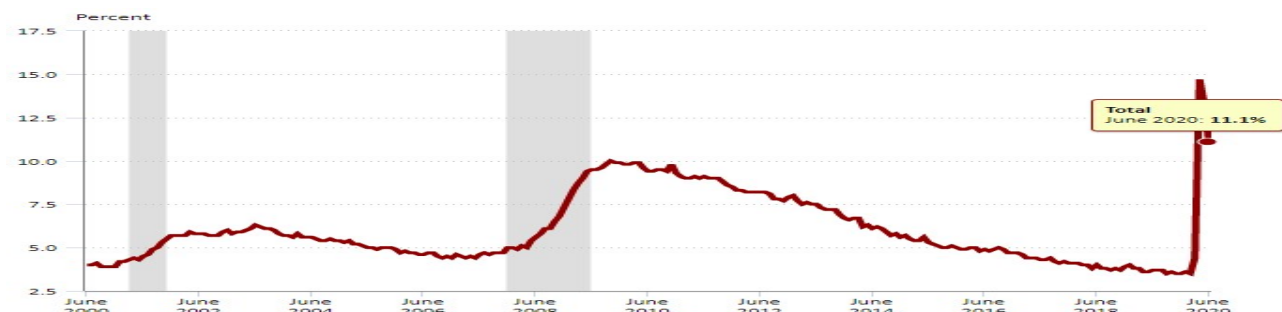
New Cases by Day

The following chart shows the number of new COVID-19 cases reported each day in the U.S. since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Hover over the bars to see the number of new cases by day.



<그림 1> COVID-19 미국 확진자 현황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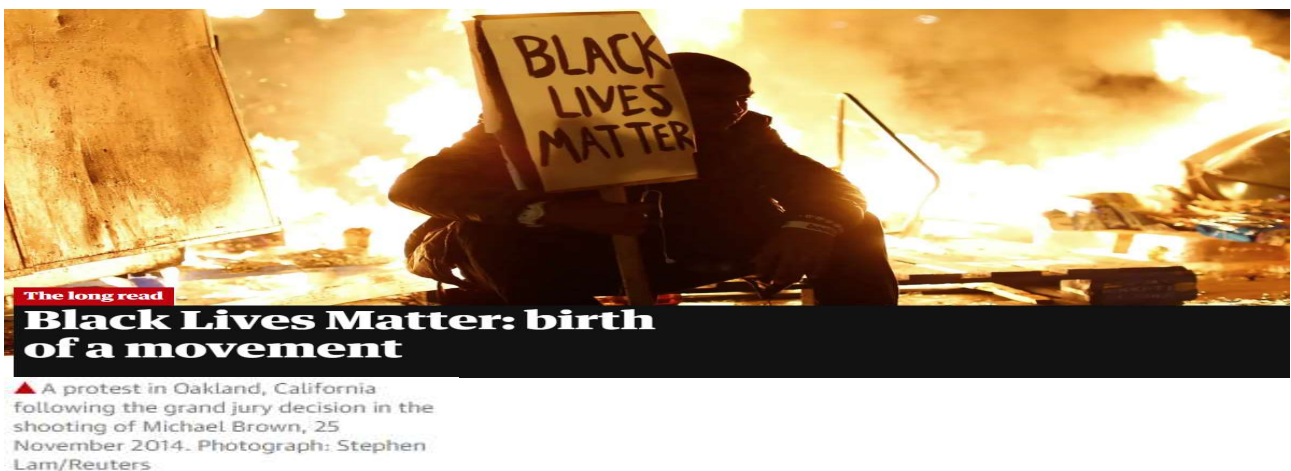
COVID-19와 미국 경제



<그림 2> 미국 실업자 수 추이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VID-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붕쇄 여파로 미국 내 실업자 수는 3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6월에는 작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난 대략 20% 미국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고, 7월 현재 실업 혜택 신청 수는 줄고 있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불거진 실업 사태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7월 30일 발표된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은 -32.9%로 73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 쇼크를 보였고, 이는 1921년 대공황 때 보인 -28.6%보다 낮은 수치다. 제롬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를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0.25% 동결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1,200조 원 규모의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 Black Life Matter



<그림 3> Black Life Matter 시위 참가자 (출처: Guardian.com)

팬데믹과 더불어 최근 체포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조지 프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이 촉매가 되어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였다. 5월 26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시작된 Black Life Matter 운동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약탈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미 정부는 시위진압용 연방군 투입 등 강수를 두며 사회 전반에 불안 요소가 만연하다.

COVID-19 확산과 위에서 언급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난 3월부터 8월 초 현재까지의 시간이 미국에서 지낸 온 16년 중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간인 동시에 처음으로 라이브 스포츠 없이 보낸 시간이기도 하다. 경제붕쇄 해제와 함께 무관중 경기로 PGA, MLB, NBA, NHL 등 스포츠 팬 시야에서 멀어졌던 프로스포츠가 미디어를 통해 돌아오고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COVID-19가 미국스포츠 시장에 끼친 경제적 영향과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의 대처 및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관중 경기를 통해 나타난 스포츠판들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I. COVID-19 인한 미국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손실

이코노믹 모델링의 Gwen Burrow는 2020년 5월 보고서에서 COVID-19가 미국 스포츠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World War II didn’t shut down sports. COVID-19 did that.” 즉,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스포츠가 COVID-19로 인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3월 중순 경제봉쇄로부터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모든 스포츠경기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대략 130만 개의 스포츠관련 직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이는 약 \$12.3 billion 소득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NFL(미국 프로풋볼리그)와 대학미식축구가 취소된다면 미국스포츠 시장의 경제적 손실은 배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 1. COVID-19로 인한 Major League Baseball 경제적 손실 및 도전

#### 1) MLB 리그축소(81경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 \$4 billion

2008년 시즌 7,948만 명의 관중동원 정점으로 이후 꾸준한 관중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 시즌엔 6,850만 명 관중동원에 그쳤다. 하지만 FOX, ESPN, Turner Sport의 TV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해 리그 전체수익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 리그 전체수익은 \$10.7 billion을 기록하며, 2018년 \$10.3 billion을 넘어섰다. 이로써 17시즌 연속 리그 수익 증가를 기록했다(Brown, 2019). 하지만 COVID-19로 인해 18년 연속 리그 수익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spring training 중단을 시작으로 MLB는 시즌 취소를 결정했고, 리그와 선수노조 간의 수익분배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리그는 7월 23일 정규시즌 팀당 162경기의 절반보다 적은 팀당 60경기 일정으로 재개하게 되었다. 리그와 선수노조가 합의를 일찍 이뤄 정규시즌 절반(81경기)을 소화할 경우 2020년 시즌 리그의 수익손실은 \$4 billion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양쪽의 합의 지연으로 60경기로 줄어들었고, 이 또한 리그 재개 후 끊이지 않는 선수와 스태프들의 COVID-19 감염 소식에 60경기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관중 경기로 인한 경기장 수익손실로 인해 팀당 전년 대비 30% 이상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시즌은 리그와 선수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 2) COVID-19 최대의 피해자는 MLB?

USA Today의 Gabe Lacques(2020)는 다음의 이유로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중 MLB가 최대의 COVID-19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① **리그와 선수노조 관계:** MLB는 과거 8차례 직장 폐쇄 또는 파업으로 시즌 전체가 취소되거나 조정된 리그 일정으로 시즌을 보낸 역사가 있다. 이로 인해 떠나간 팬심을 되찾기 위해 무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3월 12일 리그 중단 후 7월 23일 개막전이 열리기까지 리그는 선수노조에 네 차례 시즌 시작을 위한 제안서를 보냈고 그때마다 선수노조는 경기 수와 수익분배에 대한 수정제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마침내 6월 22일 선수노조가 60경기, 2020년 연봉의 37%에 합의하면서 2020년 MLB시즌이 시작될 수 있었다. COVID-19로 인한 야구팬들의 고통과 미래 불확실한 리그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모습이 어떻게 팬들에게 비추어 지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② **NBA와의 새로운 경쟁:** 미국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NFL이다. 야구 개막을 앞둔 3월 말과 4월 초에도 9월에 시작하는 NFL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야구 열성 팬인 필자의 동료 교수는 가끔 운전 중에 듣는 스포츠 라디오 방송에 대해 때때로 불만을 토로한다. “왜 야구시즌에 미식축구 이야기만 하나!” 따라서 MLB는 NFL시즌 시작 전 7월, 8월이 NFL 및 다른 스포츠 리그와의 경쟁 없이 스포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리그와 선수노조 합의가 지연되어 리그 재개는 늦춰졌고, 7월 30일 NBA는 리그 재개와 10월 초에 NBA Finals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NHL은 8월1일 정규시즌을 시작한다.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텅 빈 야구장에서 경기로 얼마나 야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ESPN이 중계한 Yankees와 Nationals의 7월23일 개막전 경기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개막전 시청률을 기록, 이는 작년 대비 232% 증가한 수치다. 162경기가 60경기로 줄었다. 경기가 준만큼 리그와 선수는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팬들에게 호소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 2. COVID-19로 인한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경제적 손실

Statistica에 따르면, 지난 시즌 NBA의 총 매출은 \$8.76 billion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번 잔여 정규시즌 중단으로 인해 대략 \$1 billion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플레이오프가 지연이나 취소된다면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리그의 수익은 중계권 판매, 머천다이징, 스폰서십, 그리고 경기장 수익(티켓 판매, 매점,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① **티켓 판매 수익 감소:** 평균적으로 정규 경기당 \$1.2 million과 플레이오프 경기당 \$2 million의 수익을 티켓 판매에서 거둔다. 그리고 리그 중단 이전부터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따라 관중감소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미디어에서 최소 티켓 판매에서만 \$500 million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Haberstroh, 2020). 그리고 매점과 주차장 수익을 합치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장 수입 손실은

대략 \$700 million으로 추정된다.

② TV 중계권료: 미디어 수익은 전체 리그 수익 중 약 30%를 차지하며, 연간 \$2.7 billion에 달한다. 서던 유타 대학에 David Berri 교수는 리그 재개로 인해 중계에는 이상이 없으나 비싼 중계권료를 내는 중계회사의 광고비 수익에는 손해는 불가피하게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Haberstroh, 2020).

③ COVID-19와 선수연봉: ESPN에 따르면, 선수노조와 리그는 COVID-19로 인해 리그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월 15일부터 25% 삭감된 월급을 수령하는데 합의했다. NBA는 2주에 한번 월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 리그 수익감소로 인해 23%~26% 선수연봉 삭감이 예상된다. NBA는 리그의 농구관련 전체 수익의 51%를 선수들과 나누게 되어있다.

### 3. COVID-19로 인한 National Hockey League(NHL) 경제적 손실

2018~2019 시즌 리그 총 수익은 \$5.09 billion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다른 프로 스포츠 리그와 마찬가지로 짧아진 시즌과 무관중 경기로 열리는 플레이오프 시즌으로 인해 수익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리그 수익감소로 인해 리그사무국 직원의 월급도 4월을 시작으로 25% 감봉되었다. 만약 리그 재개 없이 시즌이 마쳤다면 NHL의 예상 수익감소는 \$1 billion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스포츠 전문저널 The Athletics에 따르면, 팀당 티켓 판매와 매점, 주차장, 상품 판매 등으로 COVID-19로 인한 경기당 평균 경기장 수익손실은 \$1.7 million으로 예상했다. 8월 1일 리그 재개 전, 총 189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리그가 중단 되었고, 이를 경기당 평균 수익으로 계산하면 최소 \$321 million 수익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ESPN은 COVID-19로 인해 플레이오프 시즌이 무산된다면 대략 \$250 million의 추가적인 리그수익 손실을 예상했다.

① COVID-19 와 선수연봉: COVID-19 로 인한 리그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에 책정된 \$81 million의 팀당 연봉 상한선은 유지하되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4. COVID-19로 인한 National Football League(NFL) 경제적 손실

#### 1) 경기장 수익 손실: \$5.5 billion

현재 COVID-19 상황을 볼 때, 2020 시즌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orbes에 따르면, 무관중으로 치러질 경우 리그는 대략 \$5.5 billion의 경기장 수익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NFL의 경기장

수익은 티켓 판매, 매점, 스폰서, 주차장, 팀 상품 판매로 이루어지며, 경기장 수익은 리그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한다. 특히, Dallas Cowboys와 New England Patriots 등의 빅 마켓 팀의 경우 시즌 팀 전체수익 절반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며, 스몰 마켓 팀의 경우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삼분의 일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아래의 그림은 NFL 구단 수익 상위 5개 팀과 하위 5개 팀의 팀 시즌 전체 수익에서 경기장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 NFL Team Stadium Revenue

Team and Rank	Team Stadium Revenue	Total Revenue
1. Dallas Cowboys	\$621 million	\$950 million
2. New England Patriots	\$315 million	\$600 million
3. New York Giants	\$262 million	\$519 million
4. Houston Texans	\$218 million	\$497 million
5. New York Jets	\$218 million	\$475 million
28. Tennessee Titans	\$110 million	\$394 million
29. Buffalo Bills	\$104 million	\$386 million
30. Cincinnati Bengals	\$99 million	\$380 million
31. Los Angeles Chargers	\$93 million	\$375 million
32. Las Vegas Raiders	\$77 million	\$357 million

Figures are for 2018 season. The Rams, the Chargers and the Raiders are scheduled to move into new stadiums in 2020.  
Table: Forbes · [Get the data](#) · Created with [Datawrapper](#)

<그림 4> NFL 구장수익 상위 5, 하위 5 팀 (출처: Forbes.com)

## 2) 사라진 허니문 효과(Honeymoon Effect)

허니문 효과란 프로팀이 새로운 지어진 경기장으로 인해서 관중수익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들어 허니문 효과 기간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반적으로 개장 후 3년 동안은 관중동원에 효과적이라 알려져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볼거리가 적은 중소 도시에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진다. Los Angeles Rams와 Los Angeles Chargers와 팬들은 이번 시즌 약 \$5 billion을 들여 지은 새 구장에서 시즌을 맞이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 \$1.9 billion이 투입된 Las Vegas Raiders와 경기장 건설비용에 투자한 Las Vegas 지역 카지노, 호텔 산업들도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NFL경기뿐 아니라, 새 구장에서 계획된 다양한 대형 이벤트도 모두 취



소되었다. 다시 말해 NFL이란 상품에 약 \$7 billion이 투입된 2020년 시즌이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허니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첫해의 기회는 상실 되었고, 새 구장 건설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 구단, 및 리그의 재무적 부담은 커 질수 밖에 없다.

### 3) 선수연봉 삭감

줄어든 리그 수익으로 인해 선수들의 연봉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20시즌 리그의 풋볼 관련 수익의 47%가 선수들의 연봉으로 지출되게 된다. 리그는 선수노조에 COVID-19로 인한 수익감소로 선수당 38% 연봉 삭감을 제시하였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팀당 선수에게 쓰이는 비용(연봉, 은퇴연금 등) \$40 million 삭감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선수노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 USATODAY에 따르면, 선수연봉 삭감 제안과 함께 NFL 커미셔너 Roger Goodell은 \$40 million에 달하는 2020년 연봉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NFL 사무국 직원의 연봉은 5~15% 삭감이 예상된다.

## II. COVID-19와 미국 프로스포츠의 대처

### 1. Major League Baseball(MLB)

#### 1) MLB: COVID-19 검사시스템(Protocols) 및 대처

MLB는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중 가장 먼저 시즌을 시작한 스포츠 리그가 되었고, MLB만이 월정 경기를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하며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NBA와 NHL의 COVID-19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버블시스템(Bubble System) 운영하고 있다.

#### (1) MLB COVID-19 Protocols

MLB는 7월 23일 리그 개막 한 달 전 101페이지 분량의 2020 시즌 리그운영 및 코로나 감염방지 메뉴얼을 배포하였다. 11명의 심판과 다수의 선수는 COVID-19 감염 안전상의 이유로 2020 시즌에서 하차하였다. 많은 전문가와 선수들이 우려한 대로 개막 후 마이애미 말린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구단 직원과 선수들의 COVID-19 감염이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 제어가 안 되면 리그 중단까지 고려되는 상황이다.

- MLB는 한국 프로야구와 비슷한 감염방지 메뉴얼을 따르고 있고, 다음은 MLB 감염방지 메뉴얼

의 일부이다:

① 경기장에 접근하는 모든 선수단과 경기 관계자는 집이나 숙소를 나서기 전 체온 체크 2회 그리고 증상을 묻는 질문지 작성 후, 발열과 COVID-19 증상이 없을 시에만 주거지를 나설 수 있다.

② 유니폼 착용: 라커룸 사용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그는 선수단에 주거지에서 미리 경기 유니폼을 입고 오라고 권유하고 있다.

③ 교통편: 모든 선수는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구장으로 출근하여야 한다. 원정팀의 경우 팀 버스나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④ 경기장 도착: 모든 선수는 경기장 출입 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발열 체크 2회와 증상 관련 질문지를 작성 후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수 있다.

## (2) COVID-19 Compliance Officer

최근 선수와 구단 관계자의 감염증가에 따라 MLB 사무국은 모든 팀에게 COVID-19 규율준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MLB의 1차 COVID-19 감염방지 메뉴얼에는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에 대해 구장 밖의 감염 예방 행동지침에 대해 따로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개개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일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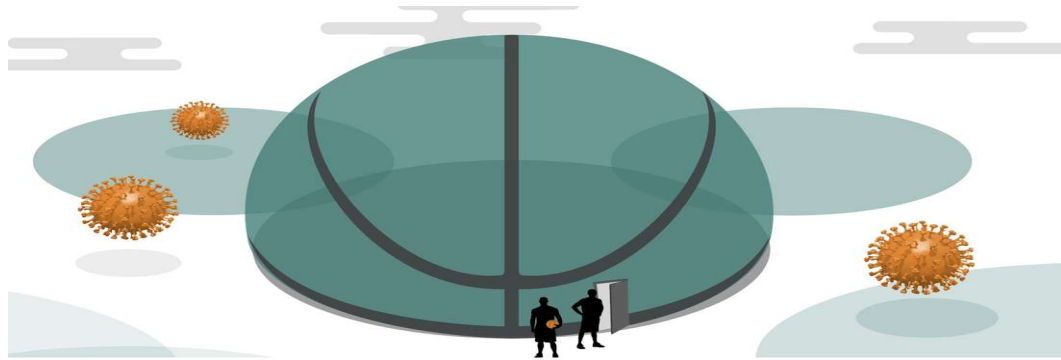
## (3) New COVID-19 Safety Protocols

8월 6일 리그와 선수노조는 보다 효과적인 COVID-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얼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메뉴얼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잔여 경기 출장을 금지한다. 선수와 스텝은 경기장, 숙소, 그리고 이동(버스, 비행기) 중엔 항상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또는 N95/KN95)를 착용하여야 한다. 원정팀의 경우 숙소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 규율준수 관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홈팀의 경우 선수들과 스텝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쇼핑몰, 스포츠바) 출입을 금하고 있다.

홈과 원정경기를 오가는 일정과 진전 없는 미국 현지 COVID-19 현실을 볼 때 시즌을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NBA와 NHL처럼 이동과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Bubble Plan(버블 플랜)으로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외부와 차단의 의미로 현지 언론들은 이러한 시설과 시스템을 버블이라고 부른다. 8월 6일 기준 마이애미 마린스와 세인트루이스 칼디널스 두 팀에게서 선수와 스텝포함 3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0경기로 축소된 리그 일정도 이번 감염 발생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 2.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NBA)

### 1) NBA COVID-19 대처: The NBA Bubble(버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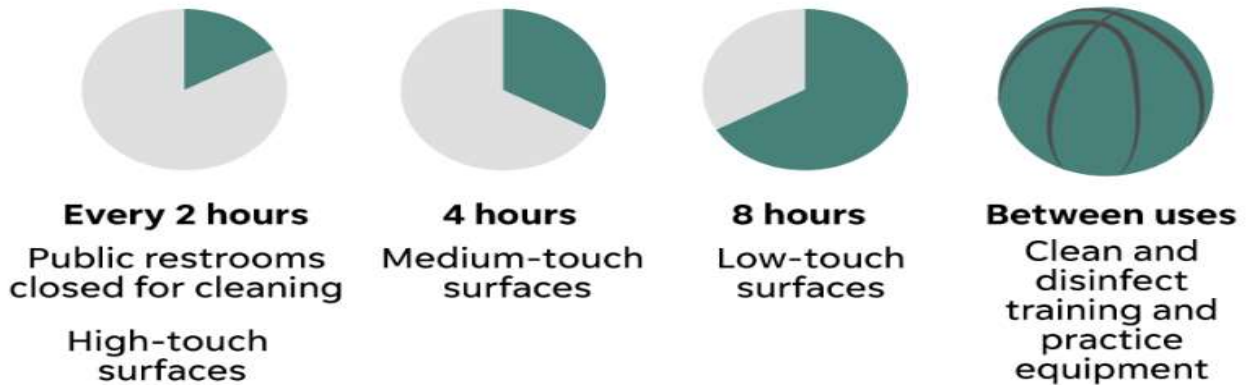
<그림 5> The NBA Bubble (출처: USATODAY)

NBA의 버블은 위의 그림이 잘 묘사하고 있다. 모든 선수와 코칭스텝, 경기진행 관계자들은 COVID-19 감염 검사와 격리기간을 거친 뒤 같은 시설에 머물며, 시즌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꼭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 시설 출입을 통제하면서 리그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즉, 버블 안에서는 COVID-19 감염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8월 4일 기준 COVID-19 확진자 수가 대략 50만 명에 달하는 심각한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월트디즈니 리조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초대받은 인원 중 철저한 COVID-19 감염 검사를 통과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기에 NBA는 바이러스 감염 제어에 자신감을 보이며 감염자가 속출한 MLB와 대비해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팀은 7월 7일 도착을 시작으로 22개의 팀 선수와 코칭스텝의 버블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소속된 팀이 결승까지 간다면 그 팀의 구성원은 10월 12일까지 디즈니 리조트에서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NBA 버블시스템을 전하고 있고, 또한 팀과 선수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버블에서의 생활을 팬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특히, LA Lakers의 JaVale McGee의 경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LA에서 올랜도로 가는 과정부터 올랜도 디즈니 리조트에서의 버블생활 모습을 개인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그의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은 100만 명이 넘는 시청 수를 보이며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미디어의 출입이 제한된 환경에서 팬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팀과 리그 관계자들은 디즈니의 3곳의 호텔에서 머물며 이발소, 골프장, 수영장, 야외 낚시, 라운지 등 리조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숙소와 리조트가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는 하나 장기간 외부출

입을 통제하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은 팀과 리그 관계자에게 쉽지 않은 희생을 요구한다. 8월 3일 현재 버블 내 누구도 손님 초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디즈니 리조트의 모든 시설물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독되고 있다.



<그림 6> 시설물 소독 현황 (출처: USATODAY)

## 2) NBA Bubble Rules

### (1) COVID-19 검사:

- ① 버블시설 도착과 동시에 모든 선수, 코치, 그리고 리그관계자들은 지정된 개인 숙소 방에서 두 번의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48시간 동안 자가 격리
- ② 버블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스텝과 선수들은 매일 다음과 같은 검사와 관찰을 하게 된다:
  - 체온 체크 후 앱을 통해 측정한 체온 보고
  - 앱을 통해 COVID-19 증상 관련 질문지 작성
  - COVID-19 감염검사
  - 웨어러블 반지 측정기: 관심이 있는 선수와 스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반지 측정기를 통해 얻은 심박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증상을 초기에 감지하는 기기

### (2) COVID-19 감염자에 대한 대처

- ① 확진자는 그 즉시 독립된 다른 숙소로 이동하고 최대한 신속히 2차 감염 테스트 시행, 만약 양성으로 나올 경우 독립된 시설에서 격리
- ② 만약 2차 테스트가 음성일 경우, 1차 테스트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3차 테스트를 실시하고 3차 테스트가 음성일 경우일 때만 다시 버블숙소로 복귀 할 수 있음

- ③ 확진자의 경우 최소 14일간의 치료 및 격리 기간을 가짐
- ④ 버블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따라야 함
  - 개인적인 야외활동을 제외하고, 시설 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연습과 시합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의 6 feet 거리 두기
  - 손 씻기: 비누와 물을 이용해 적어도 20초간 자주 손 씻기

선수와 구단 관계자뿐 아니라 디즈니리조트 직원에게도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따르게 하고 있다:



<그림 7> 디즈니리조트 직원 준수사항 (출처: USATODAY)

8월 4일 기준으로 NBA 버블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다른 리그에게 COVID-19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NBA와 디즈니 리조트의 협업을 보면 마치 전시에 지휘본부로 이용되는 CP 탱고(Command Post Tango)와 같은 느낌을 준다. 세계최대규모의 디즈니 리조트 시설, 숙련된 디즈니 리조트 스텝, 최고의 시설을 갖춘 ESPN WIDE WORLD OF SPORTS 종합 스포츠 경기장, 113쪽에 달하는 NBA COVID-19 감염방지 메뉴얼 그리고 선수들의 위기의식과 협조가 COVID-19로 심각한 미국에서 스포츠 리그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 3. National Hockey League(NHL)

#### 1) NHL의 COVID-19에 대한 대처

COVID-19로 인해 3월 12일 중단되었던 리그는 8월 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NHL과 선수노조는 합의했다. NHL은 NBA와 유사한 COVID-19 대비 버블시스템으로 리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8월 5일 기준으로 리그 재개 후 첫 주를 한 명의 감염자 없이 치르고 있다.

#### 2) NHL Bubble and Hub Cities



리그의 남은 일정은 캐나다 토론토(동부 컨퍼런스)와 에드몬드(서부 컨퍼런스) 지역으로 나눠 버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리그의 총 31개 팀 중 동, 서부 컨퍼런스 상위 12개 팀 총 24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규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Stanley Cup Playoffs 시드를 정하게 된다. 팀별로 최대 31명의 선수와 스태프와 팀 관계자 포함 최대 52명까지 버블숙소에 머무는 것이 허용된다. 버블숙소에 머무는 모든 인원은 1인 1실을 배정받게 되고, 본인 외 그 누구도 숙소 내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 NBA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의 버블시설 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컨퍼런스 파이널이 열리는 9월엔 가족들의 방문이 허용될 예정이다.

### 3) COVID-19 검사 및 통제 방법

NBA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 체온 및 증상검사를 매일 시행하며, 버블시설 내 인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운동, 식사, 경기 중을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만약 감염증상이 있을 시, 즉시 팀 관계자에게 알리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불가피하게 버블시설을 떠나야 할 때에는 복귀 후 나흘 동안 4차례 연속 감염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자각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리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선수 발생 시, 팀에게는 벌금 또는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10~14일 동안의 자가 격리와 함께 더욱 강도 높은 검사와 감시가 행해진다.

## 4. National Football League(NFL)

### 1) COVID-19에 대한 대처

여름트레이닝 캠프 시작 전 검사에서 9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여름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된 첫 주인 8월 6일 기준으로 5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NFL 선수명단의 약 2%를 차지하는 수치다. 시즌포기신청(Opt-Outs) 마감일인 8월 6일 기준으로 67명의 선수가 선수 본인, 가족들의 COVID-19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시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건강상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시즌을 포기해야만 하는 선수들에게 리그는 \$350,00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수노조는 더 효율적인 COVID-19 대책을 리그와 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스포츠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많은 미식축구의 특성상, 리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월 10일 개막전에 열릴 예정이던 프리시즌 경기는 모두 취소되었고, 현재 미국의 COVID-19 상황과 가을 독감 시즌을 고려해 무관중 경기로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다.

NBA와 NHL의 버블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8월부터 내년 2월 슈퍼볼까지 NFL이 COVID-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질병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강화된 MLB

의 감염예방 메뉴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느냐를 보면 홈과 원정경기를 오가는 NFL의 이번 시즌을 예상할 수 있으리라 본다. NFL은 명실상부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다. 미국인에게 풋볼 없는 가을은 생각하기 힘들다. 2019~2020년도 18~49세 성인에게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에 5개가 NFL 관련 프로그램이다(Patten, 2020).

COVID-19 초기에 많은 미국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메이저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 또는 취소되는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만에 하나 NFL과 선수들의 주의 소홀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여 시즌이 취소된다면,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듯하다. 3월초 COVID-19가 확산하였을 때 9월에 열리는 NFL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스포츠판은 많이 없었을 것이다.

### Ⅲ. 팬데믹 이후 얻은 것 - 팬의 가치와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로 인해 스포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프로스포츠 산업은 리그 중단과 축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DraftKings(스포츠베팅 업체)가 실시한 7월 스포츠판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판의 20%는 'COVID-19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장 관람을 계획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고, 미국 메이저 스포츠 리그 중단으로 인해 스포츠판들은 Esport, 해외축구리그, MMA, 해외야구 등 COVID-19에 대한 대처와 회복이 빨라던 국가의 스포츠 리그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 중 67%는 '미국 메이저스포츠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들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 라고 응답을 했다. 내년 시즌에도 관중 수 감소로 인한 경기장 수익 감소와 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해외 스포츠 리그/Esports 존재로 인해 험난한 시즌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COVID-19로 인해 텅 빈 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포츠클리닉을 보면서 스포츠클리닉에서의 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 1. 스포츠판의 역할과 가치

<그림 8>은 스포츠산업의 존재 이유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어느 포지션에서 위의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의 목적은 소비자(팬)들에게 선택받는 것이다. 프로스포츠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원은 미디어(중계권료) 수익이고 스폰서십 수익과 더불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천문학적인 프로선수 연봉의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중계권료 수익만으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로 인해 미디어의 스포츠산업에 대

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미디어가 이용하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스포츠가 변화는 형태를 보인다. 미디어 입장에서 스포츠 리그는 독립 콘텐츠 제작 회사이고, 스포츠경기는 그들이 납품하는 하나의 제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스포츠경기라는 제품이(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또는 다양한 장르의 TV 프로그램보다 가치가 높아졌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The sports ecosystem: the flow of money



Source: A.T. Kearney analysis

<그림 8> 스포츠 생태계: 돈의 흐름 (출처: Kearney.com)

흔히 말해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서 인기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뻔한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한다. 또 모든 스포츠경기가 각본은 없지만, 상당수는 예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지난 7월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스포츠 단체는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였다. 현재 6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NFL보다 유튜브에서 만큼은 단연 인기가 앞선다. WWE는 ‘각본’ 있는 스포츠다. 잘 훈련된 레슬러의 경기력(연기)과 선수 사이에 스토리를 입히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과거 녹화 TV프로그램에서 금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전국 공중파 채널 FOX TV를 통해 생방송 되는 경쟁력 있는 TV쇼로 성장했다. WWE는 중계권료로 5년에 \$1 billion의 이익을 얻고 있다. 즉, WWE는 어떻게 해야 스포츠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스포츠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WWE는 레슬링 사각 링이란 플랫폼 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가치)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스포츠경기가 미디어에 가장 비싼 TV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스포츠경기를 이토록 미디어에 가치 있게 만들었

는가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이에 대한 해답의 힌트는 버블시설에서 열리는 NBA 경기를 보면서 찾을 수 있었다. 3월 리그 중단 후 약 4개월 만에 돌아온 NBA 경기에 팬들은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 스포츠 마케팅 논문에서 밝혔듯 경기장 분위기로 인한 흥분된 감정, 경기장을 찾은 다른 팬들과 사교(socializing)(Karakaya et al., 2016), entertainment 요소(Bernthal & Graham, 2003; James & Ross, 2002) 등이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낮은 관람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기 외적인 부분이 경기관람 의사결정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렇듯 스포츠판이 이제껏 소비해 왔던 스포츠키링은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최고의 선수들의 경기력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경기장을 찾은 수만 명의 팬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 각본 없이 나오는 팬과 팬 사이 또는 팬과 선수 사이의 상호작용이 경기장을 찾는 또는 경기를 보는 이유였다. 실제 경기중계를 보면 선수들의 플레이 못지않게 관중들의 모습을 자주 비춰준다. 응원하는 팀이 져서 절망스러운 표정의 꼬마 팬, 팬의 음식을 뺏어 먹는 선수, 전광판으로 보이는 팬들의 키스타임, 댄스타임, 사직야구장의 파도타기, 노래방 타임 등 이렇게 다채로운 장면, 소리, 상호작용이 미디어가 스포츠키링을 가장 돈을 많이 지급하고 사는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해 COVID-19 이전의 NBA 경기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주연)과 그들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팬들(조력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가치를 우리는 소비하였다. 하지만 버블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보면 마치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포츠팬은 스포츠산업 생태계에서 소비하는 주체지만 동시에 스포츠산업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경기장을 찾은 다른 팬들에게 소비되는 상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판은 본인이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지급하고 또 그 팬은 다른 팬과 미디어, 팀, 선수에게 소비되는 제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로 재생산, 공유되기도 하고, 경기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거리로 때론 같은 모습으로 때론 다른 모습의 제품으로 끊임없이 유통된다. COVID-19로 인해 스포츠키링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과 가치가 사라졌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팬의 존재와 잊고 있었던 팬의 가치와 스포츠키링이라는 상품을 특별하고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스포츠판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스포츠키링 가치를 높이는 동반자이다. 경기장에 팬이 없이는 스포츠는 더는 미디어가 비싼 대가를 치르며 모셔가는 특별한 TV 프로그램일 수 없다. 경기장 분위기와 경기경험을 좌우하는 스포츠판의 가치를 볼 때 미래에는 팀이나 방송국에서 고용하는 '전문스포츠 팬'의 탄생도 가능할 듯하다. 뉴스를 통해 백신 뉴스가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되고 있다. 내년 시즌엔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하던, 소비되던 그 'live' 한 매력 있는 스포츠 경기경험을 고대해 본다.

## V. 참고문헌

- Baer, J. (2020, June 23). Timeline: How MLB reached an agreement for a 2020 season after 3 frustrating months.  
<https://sports.yahoo.com/timeline-on-how-mlb-season-has-been-pushed-to-the-brink-coronavirus-013338726.html>
- Bernathal, M., & Garaham, P. (2003). The effects of sport setting on fan attendance motivation: The case of minor league vs. collegiate baseball. *Journal of Sport Behavior*, 25(3), 223-239.
- Brown, M. (2019, Dec 21). MLB Sees record \$10.7billion in revenues for 2019.  
<https://www.forbes.com/sites/maurybrown/2019/12/21/mlb-sees-record-10-7-billion-in-revenues-for-2019/#3b2ec5665d78>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Retrieved July 29, 2020, fro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updates/cases-in-us.html>
- Collignon, H. (n.d) Winning in the business of sports.  
<https://www.es.kearney.com/communications-media-technology/article?/a/winning-in-the-business-of-sports>
- Currow, G. (2020, May 28)  
<https://www.economicmodeling.com/2020/05/28/the-economic-impact-of-covid-19-on-us-sports-up-to-92-6k-lost-every-minute/>
- Emily Kaplan, E. & Wyshynski, G. (2020, March). Why the NHL hit the pause button on the 2019-2020 season and what comes next.  
[https://www.espn.com/nhl/story/\\_/id/28893110/why-nhl-hit-pause-button-2019-20-season-comes-next](https://www.espn.com/nhl/story/_/id/28893110/why-nhl-hit-pause-button-2019-20-season-comes-next)
- Fisher, E. (2020, July 27). MLB season returns to strong ratings.  
<https://www.sportbusiness.com/news/mlb-season-returns-to-strong-ratings/>
- Forbes releases 21st annual NBA team valuations. (Feb 6, 2019).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forbespr/2019/02/06/forbes-releases-21st-annual-nba-team-valuations/#1ca4963811a7>
- Gensler, S. M. (2017). Factors Contributing to Consumers Decisions to Attend a Sporting Event. *Sport Management Undergraduate* 1-46.



- Gough, C. (2020). Total revenue of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2001-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93467/total-league-revenue-of-the-nba-since-2005/#:~:text=In%20the%202018%2F19%20season,about%208.76%20billion%20U.S.%20dollars.&text=The%20teams%20of%20the%20NBA,dollars%20in%20the%202018%2F19>.
- Haberstroh, T. (2020, March 12). Nightmare scenario NBA in uncharted territory as coronavirus hits league.  
<https://www.nbcsports.com/philadelphia/nba-insider-tom-haberstroh/nightmare-scenario-nba-uncharted-territory-coronavirus-hits-league>
- James, J.D., & Ross, S.D. (2002). The motives of sport consumers A comparison of major and minor league baseball.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Management* 3(3), 180-198.
- Karakaya, F., Yannopoulos, P., & Kefalaki, M. (2016). Factors impacting the decision to attend soccer games: an exploratory study. *Sport, business and management*, 6(3), 320-340.
- Lacques, G. (2020, June 5). Labor fights new competition invisible players Why MLB may be sports' biggest loser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www.usatoday.com/story/sports/mlb/2020/06/05/mlb-biggest-sports-loser-during-covid-19-pandemic/3154841001/>
- Major League Baseball Miscellaneous Year-by-Year Averages and Totals. (2020, July 30). Baseball Reference. Retrived August 2, 2020, from <https://www.baseball-reference.com/leagues/MLB/misc.shtml>
- Patten, D. (2020, May 15).  
<https://deadline.com/2020/05/tv-ratings-2019-2020-final-rankings-masked-singer-sunday-night-football-fox-cbs-1202935271/>
- Pleskoff, B. (2020, July 9).  
<https://www.forbes.com/sites/berniepleskoff/2020/07/09/mlb-owners-will-look-for-ways-to-recover-millions-in-lost-revenue/#5067ebb17df4>
- Smith, D. (2020, Aug 6). 56 NFL players have tested positive for COVID-19 since reporting to camp.  
<https://profootballtalk.nbcsports.com/2020/08/06/56-nfl-players-have-tested-positive-for-covid-19-since-reporting-to-camp/>

##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김범준(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편집 위원: 전용배(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한진욱(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과 교수)  
김세훈(경향신문 기자)  
권형일(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보조연구원: 김태중(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